

# 오징어 게임 2

## 친숙함과 낯섦으로 몰입감 극대화 다시 '오징어' 신드롬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1위' 임시완·강하늘·양동근 등 참가 딱지·팽이 등 '5인6각 근대5종' 세번째 썸 '동글게 동글게' 호평

"이러다가 다 죽어!"(시즌1·2에 모두 등장한 간부할아버지, 프론트 맨의 대사)

지난 26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오징어 게임'은 속편이 원작을 넘기 힘들다는 '소포모어 징크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주역들의 몰입감 있는 연기로 오징어 신드롬을 이어가는 모습이였다.

개봉 하루 만에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미국, 프랑스 등·플릭스페스트를 집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로 꼽히면서 시즌1 기록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는 지난 시즌 최종 우승했던 456번 참가자 송기훈(이정재 분)이 상금 456억 원을 거머쥐었으나, 주최 측 비밀을 파헤치려 3년 만에 게임에 재참가하면서 시작된다.

기훈은 딱지맨(공유)과 접선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그를 찾아 '러시안룰렛'을 진행한다. 리볼버에 총알을 한 발만 넣고 번갈아가며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에서 보여준 공유의 메소드 연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게임에 참가한 새 인물들의 캐릭터성도 도드라진다. 코인 유튜브 채널 '진기명기'를 운영하다 투자 사기를 유도한 채 도망친 명기(임시완), 전직 해병대원이자 과도한 남성성을 내세우는 대호(강하늘) 등이 삽입됐다. 용식(양동근)과 그의 모친 금자(강애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박성훈)를 비롯해 명기의 전 애인으로 임신 중인 준희(조유리)도 눈길을 끄는 캐스팅이다.

이들은 저마다 게임에 참가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서사를 부각시켰다. 주·조역들의 죽음을 소모적으로 다루지 않기 위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전략은 이해야 된다.

다만 게임의 외화(外話)를 지나치게 부연하다 보니 다화자 시리즈 특성상 집중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타노스(탑)의 어색한 랩 대사 또한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살인 게임은 시즌1에서 선보였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다시 막을 올렸다. 새로운 장면을 기대했을 관객이라면 실망할 수 있겠으나, 오징어의 시그니처와 같은 '영희 인형(동작 감지장치)'이 참가자들을 학살하며 초입부터 서스펜스를 고조시킨다.

매 게임이 끝난 뒤 OX 투표를 통해 속행 여부를 판단한 점도 새롭다. 이는 알핏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각자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집한 군중 심리가 전체 목숨을 좌우하게 돼 한계성을 드러낸다.

지난 시즌에서 성기훈이 '달고나 뽑기' 게임을 했던 것과 달리 두 번째는 '5인 6각 근대5종'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뤄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돌리기, 제기차기를 제한 시간 내에 성공해야 했다. 다섯 개 한국 전통연희를 묶어 소개하면서 새로운 자극(게임)의 부재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모습이였다. 다만 이 장면에서 뜬금없이 신해철 '그대에게'나 무한게도의 노래가 흘러나왔던 점, 신파적이거나 클리셰적인 대사로 채워진 대목은 호불호가 갈린다.

가장 호평을 받는 썸은 세 번째 '동글게 동글게'다. 참가자들은 제한 시간 내에 정해진 인원을 모아 방에 들어가야만 총격을 피할 수 있다.

배신과 권모술수가 난무한 이참극은 자연스럽게 '화장실 난투극'과 '소동의 밤'으로 이어진다. 공식적인 게임은 아니지만 참가자들은 서로 흥기를 휘두르며 오징어 게임의 '빅 이벤트'를 스스로 만들어 갔다.

서사의 핵심이 되는 장면은 주인공 기훈을 중심으로 한 총기탈취 사건. 이들은 팀을 꾸려 병정(진행요원)에게 총기를 뺏은 뒤 컨트롤룸으로 향했다. 기훈 일행은 미스터리를 한 개 풀씩 벗겨 나가면서 진실에 가까워졌지만, 참가자인 척 동행했던 1번 참가자(프론트맨·이병헌)의 배신에 가로막히면서 계획은 좌초된다. 이 장면을 끝으로 시리즈는 막을 내리고 시즌3를 예고(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한다.

한편 시즌2는 개봉 전부터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다.

결말로 나아가는 교두보에 가까운 시즌이기에 '평이하다'는 혹평이 뒤따르지만,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캐릭터 '벌드 업'과 절정으로 치닫는 극적 갈등이 필수불가결했다는 평가다.

시즌3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복선이 서사의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준호(위하준)를 중심으로 한 수색팀과 선장(오달수)의 배신, 게임에 병정으로 잠입한 노을(박규영) 등 못다한 이야기들은 기대감을 더한다.

다만, 클리셰적인 전개를 지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가 관건이다. 아들 용식이 자신의 불호를 반성하는 대목, 준희와 명기의 감정 해소 등은 필요한 내용이지만 '예측 가능한 선'에서 펼쳐진다면 기대감이 퇴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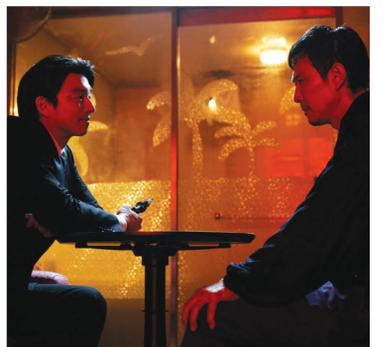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두 번째 게임 '5인 6각 근대 5종'



'프론트 맨' 역을 맡은 이병헌



허름한 모텔에서 딱지맨(왼쪽)과 접선한 기훈은 목숨을 걸고 '러시안룰렛' 게임을 한다.



지난 26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오징어 게임2'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세 번째 게임인 '동글게 동글게' 참가자들. <넷플릭스 제공>

## '영산강·한강·금강·디아크' 4대강 문화관 캐릭터 만나요

내년 1월 31일까지 '함께하는...' 전

영산강문화관을 비롯해 한강, 금강, 디아크 등 4대강 문화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강 그리기 대회'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돼 풍성한 볼거리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영산강보관리단(단장 김정희) 및 케이워터운영관리 영섬권역지사(지사장 신성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주최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함께하는 우리강'.

4대 강문화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은 저마다의 생태적 특성과 개성적인 면모를 담고 있다. 각각 물의 이미지와 느낌을 잘 표현한 캐릭터들은 친근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산강 문화관 캐릭터는 지역의 정체성인 깨끗한 쌀과 맑은 물을 상징한다. 또한 활짝 웃는 얼굴은 영산강이 주는 자연과 문화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 5월, 4개 강문화관에서



'함께하는 우리강' 전시 장면.

<영산강문화관 제공>

함께 열었던 '제1회 환경부장관배 어린이 우리강 그리기 대회' 수상작들도 전시돼 볼거리를 더한다.

방문객은 강문화관 캐릭터 엽서를 채색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영산강문화관 이현정 학예사는 "전시 주제 '함께

하는 우리강'은 강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염원이 투영돼 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영감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 무장에 다중감각 체험형 콘텐츠

'신안선실'에 무장에 무인 단말기, 점자콘텐츠 등이 마련,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상설전시실에 무장애(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요소를 도입 다중 감각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무장애 요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설치로 관람 편의를 높였다. 또한 완도선, 신안선 등에서 나온 유물의 실감 모형도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이 형태와 모형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신안선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음성과 점자, 수어로 전시내용을 전달하고, 전체의 현재 모습과 추정 복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자콘텐츠도 구비했다.

'아시아 해양교류실'에서는 발굴 당시 확인됐던 후추, 계피 등 향신료 종류들을 알아볼 수 있다.

유물전시관은 다중 감각 학습 교재, 체험 교구도 제작했다. 다중감각 점자 학습 교재 '바닷속 보물 탐험'(총 4권)을 비롯해 탐침봉을 매개로 발굴과

정을 체험하는 '수중발굴 체험 상자'가 있다.

또한 철가루 속에 담긴 유물 모형을 자석으로 찾아내는 제도 교구, 수중발굴의 인양 과정을 체험하는 '유물 인양 물 게임기', 전통 한선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한선 구동 교구'도 포함돼 있다.

표유사 연구사는 "이번 무인 단말기는 장애인들에게 음성과 점자, 수어로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애아동용 다중 감각 체험형 교구재도 다중 감각 체험형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해 수놓는 미성의 화음 '빈 소년 합창단'

2025 ACC신년음악회, 내년 1월17일 예술극장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소년합창단이 광주를 찾는다. 서양 음악사에서 수백 년간 문화 수도였던 빈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빈 소년 합창단'이 그 주인공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5 ACC신년음악회-빈 소년 합창단'을 내년 1월 17일 오후 7시 30분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친다. 청명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수놓는 보이 소프라노들의 앙상블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년 창립 527주년을 맞은 빈 소년합창단은 유네스코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역대 한국인 지휘자와 한국인 단원을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소년들이 소속돼 있다.

공연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Op.437'을 시작으로 슈만 '물의 요정 Op.91/2', 멘델스존 오페라리오 '엘리아' 중 '눈을 들어보아라'가 울려 퍼진다. 슈베르트의 낭만은 '시편 23편, Op.132'에 실린다.

이어 브람스의 '젊음의 섹' 중 네 곡을 필두로 라인베르거, 이라디에르, 베르톨리니 등 곡이 관객들을 만난다. 스위스 민요인 '구기스베르크에서 온 브레넬레'와 크로아티아 '오, 깊은 바다여'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민요 '아리랑'도 소년들의 미성애 실린다.

영화음악 레퍼토리로도 준비돼 있다. 리차드·로버트 셔먼의 '메리 포핀스' 중 '침침 체-리', 영화 '바비' 중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존 재일까?', '인어공주' 중 '언더 더 씨' 등이 그것. 지휘는 빈 음대에서 성악과 음악교육을



'빈 소년 합창단' <©Lukas Beck>

전공한 뒤 성악 앙상블 uni-sono를 공동 창립한 율리히 슈테히가 맡는다.

ACC재단 손선희 과장은 "따스하고 기품 있는 음색으로 5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무수한 음악가가 거쳐 간 '빈 소년 합창단'은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자랑한다"며 "이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밝은 새해를 알리는 파랑새처럼 날아오를 것이다"고 했다.

R석 6만 원, S석 4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